11 제19817호

## 여수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노후화로 안전문제가 심각 했던 여수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재건축 공사에 돌 입했다. 50억원을 들여 만성리 5700㎡ 부지에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올 12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새 복지관이 완공되면 장애인들에게 전문 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복지 대표 중심 센터로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다.

여수 장애인 재활 자립장과 중증 장애인 시설도 신축된다. 예산 17억원을 들여 화양면 옥적리와 화 장동 일원 등 2곳에 내년 2월 건립된다. 건립 후에 는 장애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근로직업 능력개발 과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최상의 안전시설과 쾌적 한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여문 청소년 문화의 집도 15억원이 투입돼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늘어나는 학교폭 력 문제 해결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문화·여가생활 을 위해 도심인구 최대 밀집지역인 여서·문수 지구 에 연면적 846㎡(3층) 규모로 건립된다.

또 저출산 문제 보완을 위한 육아지원 등 다양한 보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엄마품 육아 종 합센터' 건립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시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30억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여수 생명숲 어린이 집'은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이 한창이다. 웅천동 일원에 연면적 703㎡(3 층) 규모의 어린이 집이 문을 열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웅천 신도심의 어린이

활쓰레기 연료화) 기술개발 사업도 오는 2018년 6 월 완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핵심시설인 고 형 연료화시설과 가스화 발전시설이 가동되면 1일 120여t과 80여t의 쓰레기를 각각 처리하게 된다. 이 폐자원 에너지 사업으로 연간 14억원의 비용 절감 과 온실가스 줄이기 효과 등을 거둘 수 있다.

그동안 추진됐던 복지 관련 사업들도 탄력을 받 을 전망이다. 한센병 발생과 치료 과정 등 한센인들 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기록하게 될 '한센 기념관'은 40억원을 들여 한센병 치료 역사의 한 축 을 담당한 여수 애양원에 지난달 10일 완공됐다.

기념관 건립에 따라 이곳에 있는 고(故) 손양원 목사 유적지와 함께 세계적인 여수시 대표 관광문 화 유산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웅천 하나로공원 일원 1035㎡ 부지에 10억원을 들여 조성한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은 지난 6월 제

기념탑은 40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호국충 절의 도시' 여수의 역사적 상징성을 기리고, 지역 항일 운동사를 배울 수 있는 산교육장 마련을 위해 여수시가 중점 추진해 왔다.

이 밖에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48억원을 들 인 영락공원 봉안당(납골당)도 10월까지 신축공사 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간다. 또 늘어나는 시립공원 묘지 이용객 편의를 위해 3억여 원을 투입, 소라면 봉두리 일대 자연장지 3300㎡를 확장 조성한다.

특히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사 업'이 호평을 받고 있다. 시는 편안한 노후를 위해 올해 예산을 60억여원까지 늘려 4000여명의 '맞춤 형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여수시는 정부 평가에서도 전국 지자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여수시 김보희 환경복지국장은 "복지 사각지대 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국제해양관광 중심도시 비 상(飛翔)에 작은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 오늘부터 달립니다 코레일 전남본부·여수시 운영 유적탐방·이순신 밥상 등 이벤트 다양 코레일 전남본부와 여수시는 전라좌수영의 본

이순신 테마 기차여행

적지를 탐방하는 '이순신 테마기행'을 2일부터 운 이번 여행상품은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역사유 적 탐방 및 여수의 멋과 맛을 주제로 하며, 남도 해양관광열차(S-train)를 타고 오전 6시45분 서 울 용산역에서 출발해 여수 엑스포역에 도착하게

영인 여수지역 이순신 장군 및 각종 임진왜란 유

된다. 여수행 열차 안에서는 이순신과 여수에 대 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홍보영상 및 구연 동화가

상품은 당일형과 숙박형으로 분류되며, 숙박형 의 경우 순천·보성 등 인접도시와 연계된다.

상품구성은 이순신 체험, 유적탐방, 이순신 밥 상, 특산물쇼핑, 대표관광 등으로 이뤄진다. 또한 장군복 입어보기와 출정식, 기차(이순신 영상·구 연동화), 거북선 떡 만들기 등의 다양한 이벤트도 체험할 수 있다. 여수 방문 일정을 마친 참가자들 은 저녁 7시 KTX를 타고 여수 엑스포역에서 용 산역으로 복귀하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순신 유적지 탐방 체험 기차 여행은 영화 '명량'의 흥행돌풍과 맞물려 여수의 대 표 여행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여수 엑스포역 여행상담센터(061-749-2640)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박노조 전 남해화학 공장장 여수시 도시공사 사장 임명



신임 여수시 도시공사 사장 에 여수 국가산단 공장장 출신 인 박노조(59·사진)씨가 선임 됐다.

여수시는 1일 "지난달 27일 자로 박씨를 지난 4년여 동안 공석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던 여수도시공사의 새 사장에 임명했다" 고 밝혔다.

신임 박 사장은 순천고와 전남대를 졸업했으 며, 남해화학 임원을 거쳐 지난 2007년 3월부터 3 년간 공장장을 역임했다. 퇴직 이후에도 (주)CC 상근고문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해 온 전문 경영인 출신이다.

한편, 지난 2008년 10월 출범한 여수시도시공 사는 지역개발 사업의 적기 추진을 통해 도시 경 쟁력을 강화한다는 설립 취지와 달리 시민들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 반업과 도시형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운영 대행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311명의 직원이 근무하 는 등 설립 당시와 달리 규모도 커져 전문 경영인 을 선임하게 됐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푸른 바다 여수에서 물살과 바람을 가르며…

'제3회 해양수산부 장관배 국제 요트대회'에 참가한 윈드서퍼들 이 출발선에 정렬해 있다. 여수시 는 지난 28일부터 2일까지 여수 소호 요트경기장에서 200여 척의 요트와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